

불규칙 용언의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에 수용된 양상과 기본형태 분석*

성 낙 수(한국교원대)

< 차 례 >

- I. 서론
- II. 불규칙 용언의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에서의 수용 양상과 기본형태 분석
- III. 결론

I. 서론

한국어는 첨가어다. 첨가어의 특징의 하나는 용언들이 끝바꿈 활용(活用)을 한다는 것이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최현배(1986 : 162~176)로서 그는 용언들이 서술어로 쓰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줄기어간하고, 변하는 부분을 끝어미라고 하였다. 어미(語尾)라는 말은 그 뒤에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08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깨 뜨리 의 신 었 습 니 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최현배(1986 : 162~182)에서는 (1ㄱ~ㄷ)을 ‘씨줄기’[語幹]이라 하고, (1ㅅ)은 ‘씨끝’[語尾]이라고 보았다. 즉 (1ㄴ~ㄷ)은 보조어간이라고 하여, 그들
(1ㄱ)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간을 해석하면, 어간이 아주 많아지게 된다.¹⁾

이렇게 많은 어간이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이들 중에서 정인승(1956 : 33~39)은 어근(語根, root)과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것까지만 어간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모두 어미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문법’(문교부 1991 : 28~36)에서는 그 중에서 단어의 끝에 오는 연결·자격·종결 접미사는 어말어미(語末語尾)라 하고, 그 앞에 오는 것은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미라는 말의 의미는 ‘말의 끝’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어미가 어말어미·선어말 어미를 포함하여 그렇게 많다는 것은, 어간이 많다는 것과 복잡한 면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게다가 학교 문법에서는 ‘접사, 접미사’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4 : 83~85, 183~185), 그것과 어미라는 말과의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도 확실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²⁾

대개 단어들은 어근과 접미사가 합해질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활용이 되지만, 한정된 단어들은 어근에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접미사가 음운론적 변이형태가 아닌 형태론적 변이형태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불규칙 용언(不規則用言)’,³⁾ 혹은 ‘변격 활용(變格活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형태[*basic morph*]가 쓰이고, 그것이

1) 그 유형에 대해서는 최(1986 : 349~390), 김석득(1992 : 190~210) 참조.

2) 필자는 이 경우에 어근과 접미사로 통일해서 쓰고자 한다.

3) 이를 ‘벗어난 끝바꿈 變格活用’(최현배 1986 : 330)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변칙활용 [變則活用]’(이승녕 1963 : 98)이라 하는 이도 있다.

어미와 만날 때에는 대개의 음운들에 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불규칙 용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2) ㄱ. 앓다 → [안꼬], [안는다], [안즈면]
 ㄴ. 먹다 → [먹꼬], [명는다], [머그면]
 ㄷ. 뵈다 → [뵈꼬], [뵈는다], [뵈브면]
 ㄹ. 뵈다 → [말꼬], [망는다], [말그면]

(2ㄱ~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 모든 어근들의 받침으로 쓰인 자음들에 변동이 일어났다. 즉, (2ㄱ)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앞에서 ‘ㄷ’이 묵음이 되었고, (2ㄴ)은 어근의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변했으며, (2ㄷ)에서는 자음 앞에서 받침 중 ‘ㄹ’이 묵음이 되고, ‘ㄴ’ 앞에서 ‘ㅁ’이 ‘ㄹ’으로 바뀌었고, (2ㄹ)에서는 자음 앞에서 ‘ㄱ’이 묵음이 되었으며, ‘ㄴ’ 앞에서 ‘ㅇ’이 되었다. 즉 어휘형태소인 어근의 기본형태가 변이형태[allomorph]로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음운론적으로는 ‘변동’이라고 한다(허용 1991 : 251~303). 이런 변동은 다음과 같이 불규칙 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다.

- (3) ㄱ. [어근[갈]접미사[니]] → [가니]
 ㄴ. [어근[모으]접미사[아서]] → [모아서]
 ㄷ. [어근[가르]접미사[아라]] → [갈라라]

(3ㄱ)에서는 어간에서 ‘ㄹ’이 떨어져 나갔으며, (3ㄴ)에서는 어간에서 ‘ㅡ’가 탈락되었고, (3ㄷ)에서는 ‘ㄹ’이 ‘ㅌ’로 바뀌었다. 이런 현상은 음운론적으로는 한정된 단어, 혹은 모든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2)에서의 현상과 다르지 않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서는 접미사도 꼭 기본형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형태론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변이형태를 모두 쓰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ㄱ. 안아라→[[어근[안] 접미사[아라]], 보아라→[[어근[보] 접미사[아라]]
 ㄴ. 안아서→[[어근[안] 접미사[아서]], 읽어서→[[어근[읽] 접미사[어서]]
 ㄷ. 갑니다→[[어근[가] 접미사[보다]], 먹습니다→[[어근[먹] 접미사[습니다]]

(4ㄱ)에서 접미사 /-아라/와 /-어라/, (4ㄴ)에서 /-아서/와 /-어서/, (4ㄷ)에서 /-고/과 /-습-/은 모두 변이형태다. 그렇지만 각각 둘 다 쓰였으나, 불규칙 용어이라 하지는 않는다.

다만, (2)에서는 같은 조건을 가진 단어들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3), (4)와 같은 현상은, 같은 조건을 가진 모든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한정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1985년도부터 개정되어 나온 ‘고등학교 문법’ 이후(문교부 1991 : 30~33)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학교 문법서⁴⁾들과는 달리 전자를 불규칙 용언이라 하고, 후자는 그대로 규칙 용언에 포함시켰다.

이와는 달리 1989년에 개정되어 공포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전통적인

4) 역대 학교문법의 저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illegible]

방법을 고수하여,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 어간의 끝 ‘ㅌ, ㅍ’이 줄어들 적,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어’로 바뀔 적, 어간의 끝 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리’로 바뀔 적, 어간의 끝 음절 ‘르’의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리’로 바뀔 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문교부 1988 : 37~38).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불규칙 용언에 대하여 통시적인 변화를 고찰하며, 공시적으로는 학교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어떤 기본형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고찰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II. 불규칙 용언의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에서의 수용 양상과 기본형태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국어에서 용언들이 활용을 할 때 어근이 기본형태에서 음운론적으로 규칙적인 변화 외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접미사가 음운론적 변이형태만 쓰일 때 규칙용언이라 하며, 어근에 공시적인 면에서 음운의 변동 규칙에 따른 변화가 아닌 변화가 일어나거나, 접미사에 형태론적 변이형태가 쓰이거나, 그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날 때에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ㄱ. 보다 : /보고, 보기, 보아서, 봅니다, 보아라/
 ㄴ. 젊다 : /젊꼬, 젊찌, 젊머서, 젊썅니다/

ㄷ. 찾다 : /잘꼬, 찰찌, 차자서, 찰씀니다, 차자라, 찬느/

(5ㄱ)에서는 어근 {보-}가 다음에 어떤 접미사가 오든 간에 기본형태가 바뀌지 아니한다. (5ㄴ)에서는 어근의 기본형태가 자음 앞에서는 /ㄹ/이 없어지고, (5ㄷ)에서는 어근의 기본형태의 받침이 자음 앞에서는 /ㄷ/으로 중화되며, 모음 앞에서는 /ㅈ/으로 발음된다. 즉 어느 경우에도 변화가 없는 어근이나, 어떤 환경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라도 ‘한글 맞춤법’에서는 용언의 어근을 기본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ㄱ. 춥다 : 춥고, 추워서, 추우니, 추우면, 추워
 ㄴ. 낫다 : 낫고, 나으니, 나아서, 나습니다, 나아, 나아라
 ㄷ. 모으다 : 모으고, 모으니, 모아서, 모읍니다, 모아, 모아라
 ㄹ. 줄다 : 줄고, 주니, 줄어서, 줍니다, 줄어
 ㄴ. 신다 : 신고, 실으니, 설어서, 신습니다, 실어, 실어라
 ㄷ. 하얗다 : 하얗고, 하야니, 하야서, 하야
 ㅅ. 하다 : 하고, 하니, 하여서, 하여(해), 하여라
 ㅇ. 이르다 : 이르고, 이르니, 일러서, 이룹니다, 일러, 이르러라
 ㅈ. 다르다 : 다르고, 다르니, 달라서, 다룹니다, 달라
 ㅊ. 가다 : 가고, 가니, 가서, 갑니다, 가거라
 ㅋ. 오다 : 오고, 오니, 와서, 읍니다, 오너라

(5)에서는 접미사와 결합이 될 때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비하여, (6)에서는 어근이나 접미사에 음운 변동이 나타나면 표기에 반영시킨다. 그런 점에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5)과는 달리 (6)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음운·형태론적 관점과 ‘한글 맞춤법’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전자로는 (5)과 (6)의 현상이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자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학교문법과 ‘한글 맞춤법’에서의 수용양상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이

차이를 살펴보고, 어느 관점이 옳은가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ㅂ’ 불규칙 용언

(6ㄱ)의 ‘돕다, 출다’처럼 말음이 ‘ㅂ’인 단어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앞에서 반모음 /w/로 변하는 용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7) 돕다 : 돕고, 돕습니다, 더우니, 더워서, 더우면

이는 다음의 용언이 언제나 ‘ㅂ’ 받침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8) 굽다(折) : 굽고, 굽습니다, 굽으면, 굽어서, 굽으면

그래서 학교 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7)과 같은 어휘들을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어휘들은 옛 문헌들에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보인다.⁵⁾

(9) ㄱ. 돕다 : 둔거이 돕게 호노라<법화경언해(이하 법화) 2 : 242>

더본 煩惱는<월인석보(이하 월석) 1 : 18>

짜히 해 더우며<능엄경언해(이하 능엄) 6 : 93>

炎天에 더워<두시언해 초간본(이하 두해 초) 8 : 9>

ㄴ. 더럽다 : 姪欲은 더럽고<월석 9 : 24>

더러오더 더럽디 아니호므로<능엄 1 : 88>

더러본 거슬 브리고<석보상절(이하 석보) 13 : 33>

넙고 크고 더러움 업서<능엄 1 : 9>

5) 본고에서 인용하는 옛말들은 역사적 정보로서 공시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자료서만 사용한다. 이 경우 장, 절, 쪽수 표시는 관례에 따른다.

위의 예를 보면, ‘ㅂ, ㅃ’의 표기도 쓰였고, 반모음으로 바뀐 표기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ㅂ’의 존재는 삼국시대 국어⁶⁾나 고려 시대 국어⁷⁾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중세어에 와서 간극동화를 입어 [β]으로 발음되는 것이 ‘ㅃ’으로 표기되었다가 그 뒤에 /w/로 변화, 혹은 없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 규명된 바가 있다(허용 1975 : 311~321, 김형규 1980 : 48~57). 결국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자연적으로 /p/이 간극도수가 3도 이상인 유성음 사이에서 [β]으로 변이되는 것⁸⁾을 15세기에 표기에 반영하였던 것인데, 그 후에 반모음으로 바뀌거나 탈락한 것이다.

이런 용언들은 현대 일부의 방언들에서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언들에 고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⁹⁾

(10)	표준어	경상도 방언
ㄱ. 텨다 : 텨고 텨워, 텨우니, 텨우면		텨고, 텨버, 텨부면, 텨부니
ㄴ. 눅다 : 눅고 눅워, 눅우니, 눅우면		눅고, 눅버, 눅부면, 눅부니

‘ㅂ’불규칙 용언이 이와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은 쓰기에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찍이 이를 규칙용언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다(이탁 1932 : 167). 예컨대 어간 ‘츨-’을 ‘츨-’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 변형생성이론가들의 주장과 상통한다.¹⁰⁾

6) ‘古比, 夫妻, 積惡’ 등 수많은 예가 있다. 이때 간극도수가 3도 이상인 유성음 사이에서 ‘[β]’음이었는지는 모르나 국어의 특성상 그렇게 발음했을 것이다(류철 1990 : 116~248, 김영환 1978 : 36~72 참조).

7) ‘酒曰酥孝, 二曰途孝’ 등 많은 예가 있다.

8) ‘ㅃ’을 음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음성 표기일 수도 있다고 본다(허용 1991 : 311~321 참조).

9) 小倉進平(1944)나 河野六郎(1945)에서 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포와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 변형생성론자들은 어간말자음의 기저음운을 /w/, /β/, /b/, /wp/ 등으로 보아 규칙용언으로 처리하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김진우 1971, 이병건 1976 참조).

(11) 심층구조	표면구조
ㄱ. 출고	[출꼬]
ㄴ. 출어서	[추워서]
ㄷ. 출으니	[추우니]

(11)는 변형생성이론에서 이른바 심층구조와 표면구조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표기로서는 문제가 많아 채택될 수 없다.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불규칙 활용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 일관된 규칙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용언이라고 하였다. 즉 이는 음운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근이 ‘ㅂ’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 중 일부분의 단어들에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18항 6.’(문교부 1988 : 38)에서는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이라고 해서 마치 ‘ㅂ’이 ‘ㅌ’로만 바뀌어 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고 하여 이 경우에는 반모음 ‘ㅇ’로 바뀐다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반모음 ‘/w/’가 한글 표기로는 ‘ㅇ’나 ‘ㅌ’로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어두고 있는 것이지만, 이른바 모음조화를 설명하려는 의도도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역시 이 불규칙 용언의 기본형태는 {Xㅂ-}¹¹⁾으로 해야 한다.

2. ‘ㅅ’ 불규칙 용언

다음으로는 (6ㄴ)에서와 같은 이른바 ‘ㅅ’ 불규칙 용언의 예를 보자. 이는 원래 ‘ㅅ’으로 끝난 어근인데, 그 ‘ㅅ’이 모음 앞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11) ‘X’는 임의적인 요소를 뜻한다.

- (12) 짓다 : 훈 亭畝음 짓게 ㅎ아<석보 6 : 23>
 조차 짓느 惡業이<능엄 8 : 78>
 지블 지셔<월인천강지곡(이하 월곡) 98>
 벗 지어 北京으로 가노라 <노걸대언해 상(이하 노걸대 상) : 16>

‘人’불규칙 용언은 많은 방언에서 아직도 규칙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형규 1989 : 383~407, 허웅 1985 : 329~331).

- (13) 표준어 전라도 방언
가. 짓다 : /질꼬 지으니, 지어서, 지으면/ /질꼬 지스니, 지서서, 지스면/
나. 낫다 : /날꼬 나오니, 나아서, 나오면/ /날꼬 나스니, 나서서, 나스면/

이 경우도 쓰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한 학자들이 규칙용언으로 사용하려 한 적이 있다. 즉 이탁(1932:164)은 어간 ‘짓-’을 ‘짚-’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 (14) 가. 짙고 [진꼬]
나. 짙으니 [지으니]
다. 짙읍니다 [지읍니다]

이것도 변형생성이론에서 어근의 끝자음을 ‘ㅅ’이나 또는 ‘ㅌ’으로 기
저음운으로 설정함으로써 규칙용언으로 보려는 견해와 유사하다. 학교 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ㅅ’받침이 있어도 규칙 활용을 하는 것들이 있으
므로, 불규칙 용언이라 하였다.

(15) 뗏다 : /뗏꼬, 뗏스니, 뗏서서, 뗏서, 뗏서라/

‘한글 맞춤법’에서도 ‘ㅅ’이 탈락하는 용언들을 불규칙 용언으로 보고 있다(문교부 1988 : 37). 이 불규칙 용언들의 기본형태는 {Xㅅ-}으로 보아야 한다.

3. ‘ㄷ 포함’ 불규칙 용언

(6ㄷ)은 이른바 ‘ㄷ’불규칙 용언이다. 이는 어근이 ‘ㄷ’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올 때 ‘ㄷ’가 탈락하는 것으로 이른바 모음 충돌 회피현상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옛말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였다.

(16) 슬프다 : 더 말도 슬프실씨<월석 8 : 81>
슬퍼 거흔 못 곧도다<두해 초 8 : 21>
슬푸미 오직 물와<두해 초 8 : 34>

이런 현상은 ‘ㄷ’로 끝나는 어근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만나면 예외가 없이 일어나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규칙 용언으로 분류한다. 음운론적으로는 자연스런 변동 규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따로 ‘ㄷ’ 불규칙 용언이라 해서 따로 다루었다(최현배 1986 : 337~338).

(17) 푸다 : 푸고, 푸니, 퍼서, 퍼라, 푸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옛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였다.

(18) 비예 이슬 프다<역어류보해(이하 역보) 46>

옛말에서 입술소리 자음 다음에 쓰이던 ‘ㄴ’은 현대어에서 ‘ㄷ’로 바뀌어는 많다.¹²⁾ 이로써 ‘푸다’도 옛말에서는 ‘프다’였을 것이며, 현대어에서 음운의 변동 현상도 ‘ㄴ’ 불규칙 용언과 같으므로, 동일한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없다.¹³⁾ ‘한글 맞춤법’에서도 같은 범주에 넣었다. ‘ㄴ’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은 음운론적인 면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규칙용언으로 다루고 있는데, ‘ㄷ’ 불규칙 용언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도 ‘ㄴ’이 탈락하는 현상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는 불규칙 용언이라 보지 않는다.

4. ‘ㄴ’ 불규칙 용언

(6ㄴ)은 ‘ㄴ’로 끝나는 어근이 특정한 접미사 앞에서 ‘ㄴ’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즉 어근의 끝자음 ‘ㄴ’이 ‘ㄴ, ㄷ, ㄹ, ㅅ’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앞에서 탈락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9) 갈다 : /갈고, 갈면, 가니, 가려면, 갑니다, 가쇼/

또한 옛말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규칙이었다.

1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풀(草) → 모든 풀 ㄱ타<월석 9 : 23>
풀와 나모 썬 기뻐도다<두해 초 10 : 6>
- ㄴ. 물(水) → 물(물) 爲水<훈민 원, 해례 25>
물을 다 마셔 그 모시<월곡 159>
- ㄷ. 불(火) → 불(龍)이불을 토(吐)하야<월곡 101>
이웃짓 불은<두해 초 7 : 6>
- ㄹ. 물다 → 물다(보야미 가칠 브러)<용가 1 : 11. 7>
이베 물오<월석 10 : 24>
- ㅁ. 풀다 → 풀다(머리 풀고)<소해 4 : 25>
독괴 풀기 ㄱ장 도호니라<언두 상 45>

13) 처음으로 활용을 주장했던 최현배(1986 : 338)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어 있다.

- (20) 물다 : ㅅ아ㅁㅣ 가칠 ㅁ러<용비어천가(이하 용가) 1 : 11. 7>
 치마예 다마 이베 ㅁ로<월석 10 : 24>
 사록ㅁ ㅁ느니<두해 초 16 : 57>
 사롬 ㅁ는 ㄴ는 벌에라<원각경언해 하(이하 원각 하) 3-2 : 79>

이런 현상은 ‘ㄷ’받침을 가진 모든 어근에서 일어난다. 이는 (6ㄴ,ㄷ)에서 기본형태가 어떤 음운적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는 불규칙 용언이 아니나, 표기법으로는 ‘길니, 길습니다, 길오’와 같이 쓰고, ‘/기니, 겁니다. 기오’와 같이 발음할 수는 없으니, 발음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 문법에서 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음은 음운론적인 관점이고,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기법상의 문제여서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필자도 ‘ㄷ’이 탈락하는 현상이 음운론적으로는 규칙적이기 때문에 불규칙 용언이라고 보지 않는다.

5. ‘ㄷ’ 불규칙 용언

(6ㄱ)은 ‘ㄷ’으로 끝나는 어간이 홀소리 사이에서 ‘ㄷ’로 바뀌는 것으로서 이른바 ‘ㄷ’의 간극동화현상이다. 이는 통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중세어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병채 2004 : 149~150). 다음의 예를 보자.

- (21) 신다 : 象에 신즈ㅁ 가더니<석보 중 11 : 13>
 신는 비 그르메<두해 초 25 : 15>
 술위 우회 천 시러 보내시니<월곡 79>
 자본 것 시루미 술위에 시루미 ㄱ틀썩<월석 1 : 38>

이때 받침으로 쓰이는 ‘ㄷ’ 대신에 ‘ㅌ’와 같은 받침을 두면, 다음과 같

이 규칙용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탁 1932 : 165~166).

- (22) ㄱ. 심+고 → [심꼬]
 ㄴ. 심+으니 → [시르니]
 ㄷ. 심+으면 → [시르면]

그러나 ‘△’와 같은 문자는 가상의 심층구조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자모에 없기 때문에 맞춤법으로는 불가하다(허웅 1991 : 257~258). 이와 같은 어근의 변화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도 불규칙 용언이라고 했다.

- (23) 묻다 : 금을 땅에 묻었었습니다.
 묻고 보니 아깝습니다.
 책을 묻어라.

이와 같이 일부분의 단어들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불규칙 용언이라 함은 옳은 것이며, ‘한글 맞춤법’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이 불규칙 용언의 기본형태는 {Xㄷ-}으로 보아야 한다.

6. ‘ㅎ’ 불규칙 용언

(6ㄷ)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특정한 어미와 만날 때 ‘ㅎ’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옛말에서도 일어난다.

- (24) 그렇다 : 定力이 값간 그러커늘<능엄 9 : 76>
 오히려 그러곤 ㅎ믈며<금강경삼가해(이하 금삼) 3 : 1>
 그렇 구느니<월식 7 : 4~5>

부테 그러 아니 하시니<원각 상 1~2 : 125>

원래 ‘그렇다’는 ‘그러하다’에서 온 말이다.

- (25) 그러하다 : 비록 그러하나<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이하 몽) 61>
그러하곤<월석 17 : 54>

이런 식으로 축약된 말은 색깔을 나타내는 ‘하얗다, 노랗다, 가맣다, 발깁다, 파랗다’도 각각 ‘하야하다, 노라하다, 가마하다, 발가하다, 파라하다’도 마찬가지다.

- (26) ㄱ. 파랗다 : 靑衣는 파란 옷 니븐 각시내라<월석 2 : 43>
파라코 가습 가온디딘<금삼 3 : 48>
ㄴ. 파라하다 : 굶 우미 파라하도다<두해 초 6 : 51>

- (27) ㄱ. 하얗다 : 모로매 하야켄 아니홀 디로다<두해 초 25 : 50>
ㄴ. 하얗다 : 서늘히 하여호 쉼 머리터리<두해 중 17 : 8>
ㄷ. 하야하다 : 수늘기 하야호고<집언해언해(이하 남명) 하 : 19>
物 이 하야호야<두해 초 8 : 53>

- (28) ㄱ. 거머다 : 이 두거슬 거머케 호고<구급간이방(이하 구간) 1 : 95>
ㄴ. 거머하다 : 거머호야 아디 몬홀식<남명 하 : 70>
終 南山이 거머하도다<두해 중 13 : 12>

- (29) ㄱ. 벌거하다 : 뒷 피히 벌거하도다<남명 하 19>
곳 벌거호 빠디라<남명 상 : 7>

- (30) ㄱ. 노랗다 : 노라커든 ㄴᄆᆞᆫ 밍ㄴᄆᆞᆫ<구방 상 : 3>
ㄴ. 누러하다 : ㄴᄆᆞᆫ땃 雲霧 | 누러하도다<두해 초 : 6 : 9>

또한 현대국어의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등그렇다’ 등도 각각 ‘이러

‘하다, 그러하다, 더러하다, 둥그러하다’에서 온 말임은 다음과 같은 옛말에서 확인된다.

- (31) ㄱ. 이렇다 : 이러타 ㅎ논 겨치라<어제월인석보서 3>
 사로미 이리케늘사 아들을 여희리잇가<월곡 143>
 ㄴ. 이리하다 : 功德도 이리ㅎ곤 ㅎ물며<월석 143>
 설부미 이리홀썬<월곡 143>
- (32) ㄱ. 그렇다 : 定力이 값간 그러커늘<능엄 9 : 76>
 眞實로 그러터녀 아니터녀<월석 9 : 36 중>
 ㄴ. 그러하다 : 비록 그러ㅎ나<몽산 61>
 隨喜功도 그러ㅎ곤<월석 17 : 54>
- (33) ㄱ. 더렇다 : 이상에 더러ㅌ시 편안이<박통사언해 초 상 : 31>
 이러쳐 더러쳐<약장가사 이상곡 : 8>
 ㄴ. 더러하다 : 帝業憂勤이 더러ㅎ시니<용가 1 : 10.5>
 德望이 더러ㅎ실썬<용가 4 : 22. 25>
- (34) ㄱ. 둥그러하다 : 얼굴이 둥그러ㅎ니<화포식언해 7>

이런 자료들을 감안할 때, ‘ㅎ’ 발음을 가진 단어들은 ‘ㅎ’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ㅎ’ 또는 ‘·’가 준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공시적으로는 ‘ㅎ’탈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현대국어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하얗다, 파랗다’ 등은 ‘ㅎ’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마찬가지로 종결접미사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 (35) ㄱ. 색깔이 빨개.
 ㄴ. 얼굴이 노랗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ㄷ. 하늘이 파랗졌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문교부 1991 : 32~33)에서는 이를 어간과 어미가 다른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한글 맞춤법’

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위의 단어들 외에도 그런 종결 접미사의 변이형태가 쓰이는 것도 있다.

- (36) ㄱ.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나. 이것은 저것과 같애.

물론 통시적으로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36)의 단어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공시적으로는 그들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35)와 같은 예에서 종결접미사로 /애/가 쓰인 것은 변이형태라고 보아야 하며,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종결 접미사가 쓰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ㅎ’을 어근의 끝자음으로 가진 것이라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ㅎ’이 탈락되지 않는다.

- (37) ㄱ. 좋다 : /조코, 조치, 조흐니, 조하서, 존썸니다/
 나. 쌓다 : /싸코, 싸치, 싸흐니, 싸하서, 썸썸니다/

물론 {-으니}나 {-아서}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일 때는 ‘ㅎ’이 약하게 발음 되는 수도 있지만, ‘ㅎ’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으니}, {-으면}에서처럼 이른바 조음소 /-/가 쓰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ㅎ’이 끝자음인 용언들도 일부분의 단어들만 ‘ㅎ’이 탈락하므로 이는 불규칙 용언이다. 이 불규칙 용언들의 기본형태는 {Xㅎ-}이다.

7. ‘여’ 불규칙 용언

(6ㅅ)은 이른바 ‘여라 불규칙 용언’이다. 이는 어미에서 특이한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어서}에서 /-여서/가, {-어}에서 /-여/가 {-어라}에서 /-여라/가 쓰인다. 즉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가 쓰이는데,

그 원인은 옛말에서 기인한다. 현대어의 ‘하다’는 중세어에서는 ‘ᄃ다(爲)’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8) ᄃ다 : 아므레 ᄃ고라 請ᄃᄃ 씨라<석보 6 : 46>
 아비 病 ᄃ고라 ᄃ야닐 도라와 藥 ᄃ며 옷 밧디 아니ᄃ더니
 <삼강행실도(이하 삼강) 효 : 35>
 듣좁고 깃거ᄃ거니와<월석 8 : 93>
 眞實로 可ᄃᄃ 드러만 ᄃ도다<두해 초 6 : 19>

(38)에서 ‘ᄃ다’가 본용언으로서만이 아니라, 보조용언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ᄃ다’는 접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아’ 또는 ‘여’로 나타난다.

- (39) 南無 諸佛 ᄃ야 일콘좁고<석보 13 : 59>
 다서피로 ᄃ엿더라<박통사언해 초 上 : 28>
 제 혼 조초ᄃ야<몽 16>

옛말의 ‘ᄃ’는 그 자체만으로도 ‘-애[ja]’ 또는 ‘-여[jə]’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모음 충돌 회피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¹⁴⁾ 물론 현대어에서는 ‘하-’가 어근이라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는 ‘아’로 시작되는 변이형태가 쓰여야 할 텐데, ‘여’로 시작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도 어근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결합될 때 ‘여’로 발음되기도 한다.

- (40) ㄱ. 되다 : /되고, 되어서, 되여라/
 ㄴ. 매다 : /매고, 매어서, 매여라/

14) ‘·’가 ‘ㅏ’ 혹은 ‘ㅑ’와 만나면 그 중 하나가 탈락하거나, 반모음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분명히 ‘·’가 ‘ㅏ’ 혹은 ‘ㅑ’와 다른 음가를 가진 것이었으므로(허용 1986 : 331~344),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어근에 ‘ㅣ’가 결합된 것과는 다른데, 즉 ‘히’가 어간이 된 것은 데[voice]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예 이들을 묶어, “그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고 하여 같은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2 : 34~37).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경우에 접미사를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변이형태를 쓰고, 다만 ‘하-’의 경우에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이른바 표음주의에 따라 ‘-여라’로 적는다. 그리하여 학교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 모두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불규칙 용언들과는 달리 이 경우는 접미사가 변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 것인데, 접미사는 기본형태만 적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불규칙 용언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 또는 ‘여’로 시작되는 접미사들은 원래 ‘어’ 또는 ‘여’로 시작되는 것인데,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의하여 /j/가 첨가된 것으로 본다.

8. ‘거라’ 불규칙 용언

(60)은 ‘가다’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아주낮춤 명령형’ 어미에 ‘{-어라}’가 쓰이는 대신에 형태론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라/가 쓰이는 점이 특이하다. ‘아주낮춤 명령형 어미’는 원래 모두 ‘-거라/-가라’였을 거라는 증거가 옛말에 보인다.

- (41) ㄱ. 어서 도라 니거라<월석 8 : 101>
 ㄴ. 더 좋아 게 잇거라<송강가사 하 : 16>
 ㄷ. 은혜 갑가라 흐니아<몽산 31>
 ㄹ. 모물 값가라 흐논 디라<두해 초 21 : 29>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거라/-가라’에서 이른바 ‘ㄱ’의 약화 탈락이 일어나 ‘-어라/-아라’가 된 것이다.

- (42) ㄱ. 네 닛 돈 덜어라 말오<노걸대언해 초 하 : 22>

ㄴ. 도로 다가 두어라 햏아닐<월석 7 : 8>

ㄷ. 恩을 알아라 햏니아<몽 31>

ㄹ. 어미 이바다라<월석 중 23 : 89>

경상도 일부의 방언에서도 이 경우 ‘가다’ 외에 많은 단어에서 명령형 종결 접미사에 ‘거라’가 쓰인다(정철 1991 : 177, 김형규 1989 : 463).

(43) ㄱ. 밥 묵거라.

ㄴ. 고마 자거라.

ㄷ. 여기 살거레이.

‘고등학교 문법’(문교부 1991 : 32)에서는 이를 ‘거라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¹⁵⁾ 필자는 현대어의 구어에서는 ‘거라’가 잘 쓰이지 않고, ‘아라’로 쓰이고 있어, 불규칙 용언이 아니라고 본다.

9. ‘너라’ 불규칙 용언

(6ㄷ)은 ‘오다’에 관한 것으로 ‘이주 낮춤 명령형 어미’가 ‘{-어라}’ 대신에 형태론적 준건으로 나타나는 변이형태 /-너라/가 쓰이고 있다고 하여 최(1986 : 345)는 ““너라” 벗어난 움직씨”라고 하였다. 그런데 17세기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라’ 혹은 ‘-라’ 형태로 나타난다.

(44) ㄱ. ‘-나라’ : 네 쯔 더러로 오나라<노걸대 상 : 52a>

흔 디워 기드려 다시 오나라<노걸대 하 : 1b>

ㄴ. ‘-라’ : 그도 도타 가져 오라<노걸대 상 : 37>

일 ㄹ옴아는 이 오라<박통사언해 중 : 7>

15) 같은 ‘한글 맞춤법’에서 ‘제57항’의 예문에서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가 있는데, 이는 ‘가’ 다음에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라 할 수 없다.

현대에도 일부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라’가 쓰이고 있다(김영환 1982 : 182).

(45) 얼픈 댕게 오나라.

현대 국어에서는 ‘오너라’라는 말은 쓰지 않고, ‘와라’로만 쓰고 있으니, 전자는 고어라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고등학교 문법>(문교부 1985 : 32)에서는 ‘너라 불규칙 용언’이라 하고 있으나, 1989년에 나온 ‘한글 맞춤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문장 부호’를 설명하는 예문에 “애야, 이리 오너라”가 보일 뿐이다. 필자는 현대어에서는 ‘와라’로 쓰고 있으므로, ‘오너라’는 점차 쓰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 ‘러’ 불규칙 용언

(6次)은 ‘이르다’와 같이 어미 ‘{-어서}’가 ‘/-리(서)/’로 쓰이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단어는 현대어에서 ‘이르다, 누르다, 노르다, 푸르다’의 네 단어다.¹⁶⁾ 그런데 이 단어들의 쓰임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불규칙 용언은 학교 문법에서나 ‘한글 맞춤법 제18항, 8.’에서도 “어간의 끝 음절 ‘르’ 뒤에 오는 ‘-어’가 ‘-리’로 바뀔 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접미사가 특이한 것인지 어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르다’는 옛말에서 ‘니르다, 니르다’와 더불어 ‘니를다, 니를다, 리를다’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ㄱ. 니르다 : 廣長舌을 내샤 우호로 梵世○에 니르게 ㅎ시고<석보 19 : 38>

16) 이 중에서 ‘노르-’는 현대어에서도 ‘누르-’의 변이형태로 보이며, 옛말에서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

- 阿鼻地獄에 느리며 우호로 有頂에 니르리 보며<석보 19 : 13>
 나. 니르다 : 니르신 줄을 싱각호야<소학언해(이하 소해) 5 : 9>
 나조히 니롬에<소해 6 : 28>
 다. 니를다 : 아래로 阿鼻地獄에 니를오 우호로<석보 13 : 13>
 一恒沙에 니를며<법화 5 : 98>
 峨山은 北 녀크 즈비 니르릿도다<두해 초 16 : 42>
 라. 니르르다 : 廣長舌을 내사 우호로 梵世에 니르르시고<월석 18 : 4>
 받드기 안해 般若行을 닷가 究竟에 니르를 띠니<금강경언해 서 9>
 라. 니를다 : 개며 물게 니르러도 다 그리홀 거시온<소해 2 : 28>
 덕키옴에 니르러는<소해 6 : 37>
 나. 리를다 : 리르러 오며<발심수행장 37>
 리를 到<유합 하 8>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어근의 기본형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된다. 한편 동일한 활용현상을 보이는 나머지 세 단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7) 가. 누루다 : 빗치 누루고 혹 프른 밀 빗 ㄴ투며<두창경험방 49>
 黃 누루다<동문유해 하 : 29>
 나. 누르다 : 열본 썩 ㄴ튼 썩 거치 나니 비치 누르고 마시 香氣 깃
 더니<월석 1 : 42~43>
 니 검디 아니호며 누르며 성귀디 아니호며<석보 19 : 6~7>
 터리는 프러누리코 두 귀는 누르니<두해 초 16 : 40>
 다. 누를다 : 대 이 ㄴ티 프르며 고지 이 ㄴ티 누르러 물윗 여러<법
 화 1 : 148>
 히 어득호야 누르렛느니라<두시언해 초 7 : 10>
 (48) 가. 프르다 : 楚國 越國엿 象은 다 프르고<월석 2 : 31>
 ㄴ놀오 보드라운 프른 실로<두해 초 9 : 23>
 바윗 뼈메 프른 너추레<삼강 효 : 30>
 나. 프를다 : 바티 프르렛도다<두해 초 7 : 32>
 누를 爲 호야 프르렛느고<두해 초 7 : 32>

ㄱ장 브서 겹프르러<구방 하: 32>

(46~48)의 예들은 왜 이 단어들에서 {-어서} 대신 /-러(서)/가 쓰이는지 그 단서가 나타난다. 예컨대 어간 ‘니를-, 니를-, 리를-’이라면 당연히 ‘-어서’가 붙으면 각각 ‘니를어서, 니를어서, 리를어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어에서도 ‘이르-’의 기본 형태를 ‘이를-’로 잡을 수 있다.

- (49) ㄱ. [어근[이를]_{접미사}[고]] → [이르고] (ㄱ 탈락)
 ㄴ. [어근[이를]_{접미사}[면]] → [이르면] (ㄱ 탈락)
 ㄷ. [어근[푸를]_{접미사}[음]] → [푸름]
 ㄹ. [어근[이를]_{접미사}[어서]] → [이르러서]

그러나 필자는 시어나 방언에서 쓰이는 ‘이르르다, 푸르르다, 누르르다’와 같은 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¹⁷⁾ 기본형태를 이들로 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접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자연스러우나,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ㄱ’의 탈락이 다른 ‘ㄱ’이 탈락하는 단어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용언들은 접미사가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어근이 음운론적으로 규칙적인 변동을 보이는 용언들이라고 본다. 즉 그 용언들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된다.

- (50) ㄱ. [어근[푸르르]_{어미}[고]] → [푸르고] (임의적으로 /ㄹ/ 탈락)
 ㄴ. [어근[푸르르]_{어미}[어서]] → [푸르러] (/-/ 탈락)

필자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 접미사 ‘-러’ 하나만으로 불규칙 용언이라고 보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불규칙 용언들의 기본형태는 {X르르-}로 처리하면, 접미사는 정상적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규칙용언이 된다.

17) 시에서 ‘푸르른 하늘’이라거나, 방언에서 ‘일찍 집에 이르르고’와 같은 표현을 한다.

11. ‘르’ 불규칙 용언

(6ㄷ)의 ‘다르다’와 같은 단어들은 어미 ‘{-아서}’가 /-르라서/로, 어미 ‘{-아}’가 /-르라/로 나타난다. 이 불규칙 활용은 일부의 단어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도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 18항 9.’(문교부 1988 : 38)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말 접미사가 특이한 것인지, 어근에서 일어나는 변동인지가 문제가 된다. ‘다르다’는 옛말에서 ‘다르다’로도 쓰인다.

- (51) ㄱ. 다르다 : 神色이 다르지 아니호야<소해 6 : 102>
 ㄴ. 다르다 : 太子△位 다르거시늘<용가 101>
 지아비 이의 다르니를 스랑호거늘<오륜행실도 3 : 3>

그런데 같은 활용을 보이는 ‘이르다’도 옛말에서 ‘니르다, 니르다’의 양형이 나타난다. 이로써 보면, 어미 /-르러/는 옛말에서의 /르/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 (52) ㄱ. 니르다 : 法을 니퍼 니르노니<석보 13 : 48>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훈민정음언해 2>
 ㄴ. 니르다 : 늬 爲호야 니르거나 쓰거나<월석 17 : 40~41>
 부터를 니르샤덴 곧 니르샤디<금삼 5 : 13>

실제로 많은 방언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달르다, 일르다’와 같이 사용한다(김웅배 1991 : 347~355).

- (53) ㄱ. 달르다 : /달르고, 달라서, 달르면, 달라/
 ㄴ. 일르다 : /일르고, 일러서, 일르면, 일러/

그러므로 현대어에서는 이럴 경우 예컨대 ‘다르-’의 기본형태를 {달르-}

로 잡으면 된다. 즉 ‘달르다’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며, 이 경우 음운 변동은 ‘ㅡ 불규칙 용언’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된다.

옛말에서도 ‘가르다’가 부사형 접미사 {-아}와 같이 쓰이면, 다음과 같이 ‘가랴’가 된다.

(54) 가르다 : 六道에 가르 단녀<법화 1 : 189>

하느해 가르 드되엿느니<두해 초 9 : 32>

이는 ‘다르다’가 부사형 접미사 {-아}와 같이 쓰이면, ‘달아’가 되는 것과 같다. 중세어에서는 이를 ‘.’ 불규칙 용언으로 볼 수도 있다.

(55)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훈민정음언해 1>

乃終 내 달울 주리 업스시니이다<석보 9 : 27>

그런데 옛말에서도 ‘달르.’가 쓰인 예가 있다.

(56) 맛둥흠이 달름으로<소학언해 제 : 2>

현대어에서도 이와 같이 어근을 ‘달르-’¹⁸⁾로 잡으면, ‘ㅡ’가 탈락하는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이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와 만나면, ‘ㅡ’가 탈락하게 되고, 이것은 보편적인 규칙이 되어 불규칙 용언에서 벗어날 수 있다.

(57) ㄱ. [어간[달르]_{어미}[고]] → [달르고]

ㄴ. [어간[달르]_{어미}[으면]] → [달르면]

ㄷ. [어간[달르]_{어미}[아서]] → [달라서]

18) 이는 받침의 ‘ㄹ’이 [l]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l]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ll]로 들린다. 그러므로 표기상으로도 ‘ㄹㄹ’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용언들은 학교문법과 한글맞춤법에서 모두 불규칙 용언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불규칙 용언의 기본형태는 {X르르-}가 되며, 그럴 경우 접미사는 규칙적인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규칙용언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이른바 불규칙 용언들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변화를 찾아보고, 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규칙 용언의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 보고, 학교 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불규칙한 활용을 보이는 어근이나 접미사들의 형태들에서 기본 형태를 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의 수용과 필자의 견해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의 이른바 불규칙 용언의 수용과 필자의 견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ㄹ	ㅡ	ㅏ	ㅑ	ㅓ	ㅕ	ㅎ	ㅎ+ㅛ	러	르	여라	거라	너라
문 법				0	0	0	0	0	0	0	0	0	0
한글 맞춤법	0	0		0	0	0	0		0	0	0		
필 자				0	0	0	0						

위 표에서와 같이 필자는 음운론적인 면에서 규칙적으로 예외 없이 변이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불규칙 용언에서 제외했으며, 현대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형태들은 고어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 필자가 주장하는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들의 기본 형태

필자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들의 기본형태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구 분	ㅂ	ㅅ	ㄷ	ㅎ	ㄹ	ㄴ
	불규칙				규칙	
기본 형태	{Xㅂ-}	{Xㅅ-}	{Xㄷ-}	{Xㅎ-}	{Xㄹㄹ-}	{Xㄴ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각 불규칙 용언들은 어근의 기본 형태에서 음운·형태론적 조건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접미사가 변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불규칙 용언에서 제외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 10월 27일에 접수하여 2008년 11월 30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10일에 게재를 확정함.

참고문헌

- 교육부(1991), *고등학교 문법*, 서울 : 교육부.
- _____(2004), *고등학교 문법*,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김민수 · 남광우 · 유창돈 · 허웅(1960), *새 중학 문법*, 서울 : 동아출판사.
- _____(1960), *새 고교 문법*, 서울 : 동아출판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서울 : (주)답출판사.
- 김수관(1977), “日 變格動詞類活用の 音韻論的 意義,” 언어 2-2, 서울 : 한국언어학회.
- 김영환(1982), *조선어방언학*,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_____(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웅배(1991), *전라남도방언연구*, 서울 : 학고방.
- 김윤경(1948), *초급용 중등말본*, 서울 : 동명사.
- _____(1948), *고급용 나라말본*, 서울 : 동명사.
- 김진우(1971), “所謂 變則用言의 非變格性에 關하여,” 韓國言語文學 8~9, 서울 : 한국언어문학회.
- 김차균(1971), “변칙용언의 연구,” 한글 147, 서울 : 한글학회.
- 김형규(1980), *國語史研究*, 서울 : 일조각.
- _____(1989), *韓國方言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1980), *增補 國語史研究*, 서울 : 일조각.
- 류렬(1990), *조선말역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문교부(1988), *편수 자료 II-4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기 용례), 서울 : 문교부.
- _____(1991), *고등학교 문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태윤(1948), *중등 국어문법*, 서울 : 경성인서사.
- 박병채(2004), *국어발달사*, 서울 : 세영사.
- 사회과학원(1972), *《조선말규범집》 해설*,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京城:岩波書店.
- 심의린(1949), *改編 國語文法*, 서울 : 청구사.
- 이병건(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서울 : 일지사.
- 이승녕(1956), *중등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 _____(1956), *고등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 _____(1963), *고등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 이영철(1948), 중등 국어 문법, 서울 : 을유문화사.
- 이 탁(1932), “ㄱ, △, ◇을 다시 쓰자,” 한글 4, 경성 : 조선어학회.
- 이희승(1949), 초급 국어 문법, 서울 : 박문출판사.
- _____(1956), 中等 文法, 서울 : 박문출판사.
- 이희승·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 : 신구문화사.
- 장하일(1949), 표준 말본, 서울 : 종로서관.
- 정인승(1956), 표준 중등 말본, 서울 : 신구문화사.
- _____(1956), 표준 고등 말본, 서울 : 신구문화사.
- 鄭 喆(1991), 慶北 中部 地域語 研究, 대구 : 경북대출판부.
- 최태호(1957), 중학교 국어과 중학 말본Ⅱ, 서울 : 사조사.
- 최현배(1957), 새판 중등 말본, 서울 : 정음사.
- _____(1958), 중학교 국어과 중학 말본Ⅲ, 서울 : 사조사.
- _____(1986), 우리말본, 서울 : 정음문화사.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 경성 : 동도서적.
- 한국국어교육연구회(1964), 중학 국문법, 서울 : 향문사.
- _____(1964), 고등 국문법, 서울 : 향문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4, 서울 : 어문각.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서울 : 샘문화사.
- _____(1986), 국어음운학, 서울 : 샘문화사.

〈국문초록〉

불규칙 용언의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에 수용된 양상과 기본형태 분석

성 낙 수

본고에서는 이른바 불규칙 용언들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변화를 찾아 보고, 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규칙 용언의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 문법이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불규칙한 활용을 보이는 어근이나 접미사들의 형태들에서 기본 형태를 정해 보았다.

먼저 학교 문법과 한글 맞춤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양상과 필자가 주장하는 불규칙 용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ㄹ	ㅡ	ㅈ	ㅂ	ㅅ	ㄷ	ㅎ	ㅎ+ㄹ	ㄴ	ㄷ	여러	거라	너라
문 법				0	0	0	0	0	0	0	0	0	0
한글 맞춤법	0	0		0	0	0	0		0	0	0		
필 자				0	0	0	0						

위 표에서와 같이 필자는 음운론적인 면에서 규칙적으로 예외 없이 변이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불규칙 용언에서 제외했으며, 현대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형태들은 고어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필자는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들의 기본형태를 논의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구 분	ㅂ	ㅅ	ㄷ	ㅎ	ㄹ	ㄴ
	불규칙				규칙	
기본 형태	{Xㅂ-}	{Xㅅ-}	{Xㄷ-}	{Xㅎ-}	{Xㄹㄹ-}	{Xㄴ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각 불규칙 용언들은 어근의 기본 형태에서 음운·형태론적 조건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접미사가 변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불규칙 용언에서 제외하였다.

■ 핵심어 : 불규칙 용언, 학교문법, 한글 맞춤법, 기본형태

<Abstract>

Acceptance Phases and Basic Allomorph Analysis
of Irregular Declinable Words in School Grammar
and ‘Hangeulmatchumbeop’

Seong, Nack-soo

This paper investigated diachronic and synchronic changes of irregular declinable words in Korean, and checked what thing from among these has qualification for irregular declinable words. And considered how these irregular declinable words reflected in school grammar and the rules of spelling of Hangeul. Also, decided basic allomorph from morph of roots and suffixes what has conjugation.

First, next <Table 1> shows the difference in conjugation between school grammar, the rules of spelling of Hangeul and this writer.

	‘l’	‘ŋ’	‘u’	‘p’	‘s’	‘t’	‘h’	‘h+æ’	‘l̥ə’	‘l̥i’	‘y̥əla’	‘k̥əla’	‘nela’
school grammar				○	○	○	○	○	○	○	○	○	○
the rules of spelling of Hangeul	○	○		○	○	○	○		○	○	○		
This writer				○	○	○	○						

<Table 1>

As showed above, this writer excepted allomorph what has no exception

at phonological side from irregular declinable words and insisted that the morph what out of use in modern language classified as an archaic word.

Next, this writer explained about basic allomorph of irregular declinable word and regular declinable word. The result showed next <Table 2>.

	‘p’	‘s’	‘t’	‘h’	‘lθ’	‘li’
	irregular				regular	
basic allomorph	{Xp-}	{Xs-}	{Xt-}	{Xh-}	{Xliθ-}	{Xlii}

<Table 2>

As showed above, this writer suggested that each irregular declinable word alternate from basic allomorph in phonological condition and morphological condition, and excluded the one what has allomorph in suffix from irregular declinable word.

- **Key words** : irregular declinable word, school grammar, the rules of spelling of Hangeul, basic allomorph